

## 大學의 開放과 캠퍼스 安全문제

金 安 重

(서울大 教育學科)

## 1. 사라진 象牙塔

‘학교’라는 서양 말 ‘school’의 회랍 어원 ‘scholē’가 餘暇를 의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때의 餘暇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에서 ‘隔離’ 또는 ‘遮斷’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교육이란 원래 인류가 역사적으로 누적해 온 정신문명의 結晶體, 곧 敎科나 學問을 다음 세대에 傳授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의 잡다한 일들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체도의 역사는 성인 사회의 ‘먹고 사는 일’(이것이 生活의 의미지만)로부터 학생들을 ‘遮斷’ 또는 ‘隔離’시키는 일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최상의 교육기관, 즉 대학을 가리켜 ‘象牙塔’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산업화를 기록하면서부터 이 의미의 학교는 神話로서나 존재하게 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학문’이라는 이름의 抽象과 形式에 갇힌 眞理의 研磨場이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技術과 情報의 獲得場으로 변모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래서 生活中心—學問中心이 아니라—교육

이 20세기를 風靡해 왔고, 취직과 직결되지 않은 학과는 ‘비인기 학과’요 취업 알선에 서투른 교수는 ‘무능교수’ 소리를 두려워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대학이 당위적으로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떠나서라도, 대학이 ‘象牙塔’으로 불리우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와서는 鄉愁를 자아내게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最高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그 바깥의 變轉無常의 俗世의 삶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된 채 학문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에 한번 몸을 담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鄉愁 같은 것을 느낄 만한 理想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物理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대학이라는 곳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으로 되어 버린 지 오래다. ‘象牙塔’이라는 말에서 풍기는 옛 修道院이나 절간같은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시내 버스나 택시가 대학구내를 질주하고 하루에도 여러번 잠상인들이 교수 연구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의 대학이다. ‘開放社會’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대학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開放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대학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전체적으로 오염시키고, 사회 속에 蔓延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위

험을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실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여러 가지 輕犯罪가 일어나고 있고,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暴力犯罪와 破廉恥 犯罪까지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단 의 부인에 의한 범죄뿐 아니라 대학 내에서 대학 구성원들 자신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非行·脫線·騷亂 따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학의 물리적 환경이 여러 가지 위협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나 허술하고, 대학의 安全管理意識조차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대한 전통적 관념 속에 보수적 색채가 강하게 들어 있고, 이것이 대학에 대한 막연한 浪漫的 憧憬 같은 것과 어우러져 대학의 어두운 측면이나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과소평가하거나 거의 의도적으로 의도하려는 경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관념을 훨씬 앞질러 가고, 그래서 우리의 대학은 더 이상 '秀越性'의 마지노 線도 아니며, 道德君子들이 모여서 高談俊論을 하는 곳도 아니라는 현실론자들의 말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최소한으로 말해서, 대학을 옛날의 '학교'(즉 schole)나 '상아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그것은 어차피 꿈같은 이야기겠지만), 대학이 그 교직원과 학생들을 최소한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研究와 教育活動에 적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캠퍼스 安全管理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 2. 달라지는 大學環境과

### 캠퍼스 安全問題

冒頭에서 언급했어야 할 일이지만, 필자는 대학의 管理行政 경험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학사회에서의 非行·暴力·安全事故·犯罪 따위에 대한 어떤 經驗的 研究나 체계적 사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점에 관한 한 필자는 이 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請託을 받았을 때에도 사양을 했었다. 그러나 『大學教育』측에서는 편집의도가 목하의 주제에 대한 專門的인 分析이나 處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만 해주는 것에 있다는 말로써 필자의 사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글을 쓴다는 점에서 특별한 양해를 구해야 할 처지에 있다. 다만 필자가 그동안 경험한 대학생활을 통해서 인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事案의 논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여길 뿐이고,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을 잘못 말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 안팎의 물리적 여건은 그동안 크게 변화되어 왔다. 우선 대학의 규모와 양적 면에서의 팽창은 과거 '60년대에 볼 수 있었던 조그만 單科大學 단위의 단란한 캠퍼스 분위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대신 수만명 단위의 인구가 단일 構內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된 대규모의 복잡한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캠퍼스의 대형화는 대학 구내에서의 移動 문제를 낳고, 이것은 차량의 증가와 주차난을 초래하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安全問題를 낳고 있다. 차량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난 것이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수년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끌고오는 차량으로 캠퍼스 전체가 뒤덮이고 말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대학구내의 주차문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웬만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양적 팽창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학의 警備體制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비체제는 수위실에서 순찰과 출입자 통제를 맡는 형태가 주종이었지만, 차량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이 방식으로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대학의 활동도 과거와 같이 研究 및 教育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바깥 사회에 대한 봉사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다양하고 이질적인 활동

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학 캠퍼스는 더이상 大學人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다.

이렇게 출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눈에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것의 하나가 크고 작은 도난 사건들이다. 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필자도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여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가방이 없어진 것이다. 불과 2~3분 사이의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리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당시 진행 중이던 번역 원고의 상당 부분을 다시 써넣는 수고를 해야 했다. 그 가방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巨金을 주고 새로 산 것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귀중품이 그 속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랴만 다행이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가벼운 편이고, 그 얼마 후에도 몇 십 만 원의 현금을 다른 연구실에서 연속적으로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뒤로 필자는 반드시 연구실 문을 잠그고 다니도록 주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연구실보다 심각한 것이 도서관에서의 도난 사건들일 것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번 잠은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 싫어서 잠시 離席하는 사이에 책가방이나 옷 같은 것을 盜難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리가 부족해서 겪는 고난이니만큼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 해주어야 할 급선무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 警備體制에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대학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어디가서 '신고' 할 곳도 없으며, 잃은 물건을 되찾는 일은 꿈도 못꾸는 것이 현실이다.

분실이나 도난 외에 필자가 경험했던 것의 하나가 器物 破損이다. 어느날 저녁 무렵에 퇴근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나왔더니 내 자동차 오른쪽 문의 유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있었다. 시트 위에 떨어진 유리조각들을 대강 치우고 나서 아직 퇴근하지 않은 서무과를 찾아가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신고를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실을 두고 말한다면 서무과에서는 신고를 받는 것도 아

니었다. 그런 '사건' 아닌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따라서 "재수가 없으시군요, 잊어버리고 마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도 외에 다른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역시 현실인 것이다.

그런대로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들이다. 물리적 환경의 악화와 함께 도저히 사소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범죄와 형사적 사건의 발생 빈도도 캠퍼스 주위에서 증가일로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性犯罪이다. 원래 性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이 그런 특성을 갖는 점이 있겠지만, 캠퍼스 내에서의 성범죄는 특히 걸로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의 고발이나 그에 따른 범행수사와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경향이 많다. 어찌다가 관한 경찰서에 성범죄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대학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輕視되기 쉬운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원래 밤만 되면 어두운 곳이 많지만 그나마 몇 안 되는 外燈조차도 밤 10시 정도만 넘으면 꺼지기 때문에 캠퍼스 곳곳은 완전한 암흑에 휩싸이게 되고, 이것이 특히 학생의 상당 수가 여학생인 대학의 특성상 성범죄를 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 것 같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이라도 시달린 뒤에는 대학의 외등이 더 빨리 꺼지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圖書館의 閉館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와 함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대학의 夜間 照明이 어두운 상태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밤 늦게까지 독서와 연구에 몰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어두운 대학 캠퍼스란 공부에 적합한 곳이라기보다는 데이트이나 더 적합한 곳이라고 해야 하고, 실제로 대학구내의 호젓한 숲속이나 으스스한 장소에서 데이트族들이 불량배의 습격을 받아 금품을 털리고 성폭행을 당하는 일은 이미 실심치 않게 보도되곤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우리의 대학환경은 가까운 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달라져 있고 그만큼 캠퍼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각 대학들의 안전대책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범죄나 소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의 대학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판단이 아닌가 한다. 대학 캠퍼스의 안전대책이 보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학이 사회의 다른 곳에 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대학의 물리적 환경은 대학의 올바른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州立大學들이 24시간 동안 대학의 문을 열어놓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밤을 새우며 공부하기도 하고, 피곤해지면 바깥의 잔디밭에 나와 쉬기도 한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 학생들은 새벽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아무 때나 도서관을 드나들며 공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야말로 대학 도서관 주변은 不夜城을 이루고 있다. 외국 留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절감하는 바이지만, 우리 유학생들이 외국 대학에 가서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大學環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곳의 교수진이 좋거나 실험실 또는 실습실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24시간 쉬지 않고 稼動하도록 그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대학은 '낮에만 稼動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은 해만 지면 암흑으로 덮여 버리는 곳, 그래서 밤이면 학생들은 집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지속되는 한 캠퍼스의 안전관리도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크게 변화되기 어렵지 않나 싶다.

### 3. 대학 警察制 導入의 필요성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제 우리의 대학도 夜間 開放 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학문의 국가간 경쟁

시대에서 선진국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도서관만큼은 학생들이 晝夜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꼭 이 글의 결론같은 것으로 제시할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 데에 한 가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바로 대학 경찰제의 도입이다. '大學警察(university police)'이란 대학 안에 常駐하면서 순전히 대학 내의 질서와 치안만을 담당하는 경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대다수 종합대학에는 오래 전부터 제도화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캠퍼스 내에서의 범죄와 기물파손 행위(vandalism)의 예방과 수사를 맡고 있고, 대학 안에서의 교통질서 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와 견인,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음주와 마약 단속같은 업무들을 맡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대학과 경찰의 관계란 그동안 '데모와 鎧匪'의 관계로만 발전 아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이 외국의 경우와 꼭 같은 '大學警察' 제도를 당장에 갖추기는 어려우리라 짐작되지만, 사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대학의 경비를 맡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대학과 경찰 모두가 하루 빨리 정치라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이때의 '벗어난다'는 것이 양자의 경우에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날이 와야만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대학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식변화와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짧은 지면에서 캠퍼스의 안전대책을 다 논 의할 수도 없고 또 필자로서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토대로 결론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로 대학의 안전문제는 대학의 올바른 발전과 임무 수행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 둘째로 현재와 같이 수위실에서의 출입통제와 순찰 방식의 안전대책에만 의존해서는 대학이 현대사회 속에서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그에 적절한 防犯 및 질서유지를 기할 수 없으리라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대

학이 가지고 있는 힘—그것이 얼마나 크던 작던 간에—을 완전히 稼動할 수 있도록 그 물리적 環境과 條件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대학생들이 밤새워 도서관에서 독서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 캠퍼스로부터 쫓겨나서(?) 아까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던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낮에만 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은 집에 가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낡은 지 오래인 생각이다. 대학의 도서관은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학술 자료와 정보의 集合處이고, 大學生들은 그 속에서 보내는 時間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이자 학생들의 ‘홈그라운드’이다.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의 크고 작은 연구실들도 바라건대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연구실을 열어놓아야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는 한 우리 대학의 참다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필자는 믿는다. 대학 전반의 운영체제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여러 제약점들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운영방안들이 이 글에서 말한 24시간 稼動體制로 가는 것이 그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캠퍼스의 안전대책도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외국과 같은 ‘大學警察’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우선 각 대학이 최소한 請願警察 제도라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그래서 야간의 대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일은 당장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말이 난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일으키는 騷擾와

분란도 적지 않다. 연구실이나 강의실 바로 밑에서 큰 소리로 노래부르는 학생도 있고, 공놀이 운동장 운동을 하던서 연구와 강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靜寂을 깨뜨리는 학생들도 많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더욱 소란하고 어지러운 것이 요즘의 대학이다. 수위들이 제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미 紙上에 몇 번 보도된 적도 있지만, 젊은 교수에게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대학의 질서와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일도 종종 보게 된다. 대학의 규모가 작고 또 사제 간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운 시절에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비슷한 사건이 생겨도 말 그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이를테면 대학구내에서 운전술을 하고 가던 교수와 학생 간에 ‘시비’가 붙어도(부끄러운 말이지만) 요즘 학생들로서는 1 대 1로 조금도 풀리는 일 없이 당당하기만 한 것이 世態이다. 敎授들의 입장에서는 敎育課程 상의 활동 이외의 일로 학생들과 맞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대학이다. 실제로 학생들도 더이상 칠모르는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이 공놀이하는 학생이나 시비대상 학생을 상대로 교육적인 훈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대학은 대학에 적합한 형태의 법률 집행기능과 질서유지권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象牙塔 시절은 傳說 속으로 사라졌다 해도 대학은 여전히 진리의 탐구와 다음 세대 성원들을 위한 陶冶의 장임에는 틀림없고, 이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다운’ 질서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은 확실한 것이다. ▣